

고등교육 양적 연구 동향 분석*

구성우**· 김병주***

< 국 문 요약 >

본 연구는 고등교육 분야 양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9~2018년까지 10년 동안 6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244편의 양적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서 분석 기준을 주제, 대상, 분석 목적, 분석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의 양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 주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 재정이라는 고등교육의 주제가 전체 분석 대상 논문 중 약 73%를 차지하였다. 둘째, 고등교육의 양적 연구 대상 또한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대학생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총 244편 중 220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셋째, 국가 수준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패널 자료들이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다. 넷째, 고등교육 연구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공동체가 시급히 형성되어야 한다.

주제어 : 고등교육, 양적 연구, 연구 동향

I. 서론

한국의 고등교육은 보편화 단계에 도달할 만큼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김병주, 2010). 광복 직후 정부는 기초교육인 초등교육 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가 주도한 '의무교육 6개년 계획'으로 광복 당시 64%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취학률은 1959년에 96%까지 상승하였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증가함에 따라 중학교 입시가 과열되어 '중학교 무시험 정책'이 시행되었고, 중학교 입시가 안정되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과열되어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초·중등 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을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윤정일 외, 2003). 정부는 증가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대학설립 준칙

원고접수: 2020. 2. 8., 심사시작: 2020. 2. 25., 심사완료: 2020. 3. 5.

* 본 연구는 2019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영남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기관세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교수, gusungwo@ynu.ac.kr, 제1저자

***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kimbj@yu.ac.kr, 교신저자

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고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입학자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박남기·임수진, 2015).

오늘날 고등교육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재정부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는 등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다(김병주 외 2010; 김병주 외, 2011). 또한 최근 고등교육은 출산률 저하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와 중도탈락 학생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이나 평가지표는 대학의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김병주, 2016)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등록금이 동결되어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재정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고등교육 연구 동향 분석은 주요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변기용 외, 2012; 신정철 외, 2008), 고등교육 분야 중 재정이나 행정 등 특정한 분야만을 분석하는데 그쳤다(김규태 외, 2010; 남수경, 2015). 그리고 양적 연구 동향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교육행정학 분야를 분석한 신현석 외(2014)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고등교육과 관련한 모든 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교육 연구 동향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학문공동체 형성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미국은 AIR(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라는 학술연구단체가 고등교육연구만을 전문적으로 보급하는 『Research in Higher Education』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학문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신정철 외, 2008). 하지만 국내는 '고등교육'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는 학술단체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KCI 등재(후보) 학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¹⁾.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 연구 동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고등교육 연구들을 직접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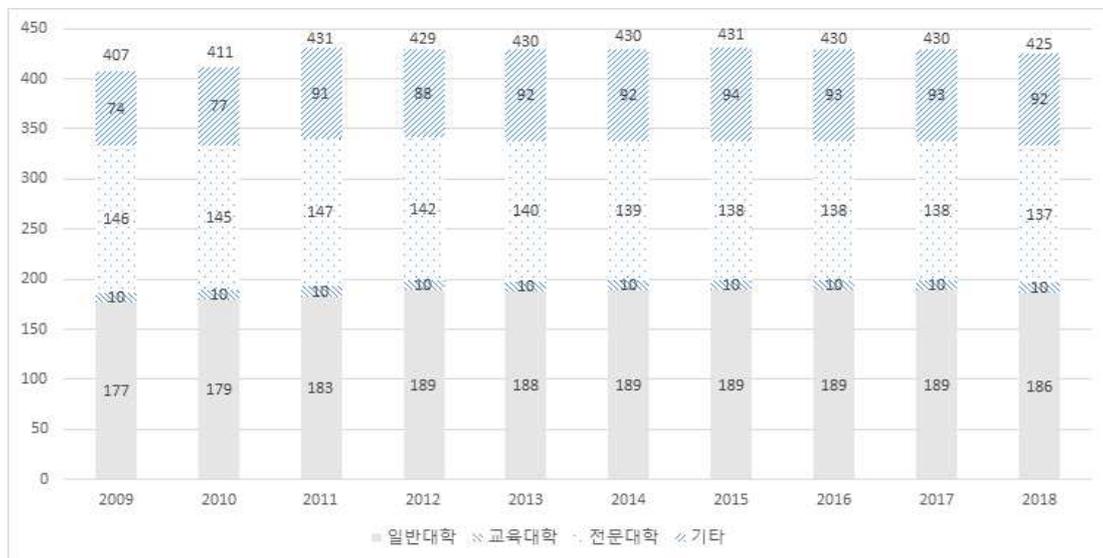
연구는 실제와 이론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가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동향 분석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신현석 외, 2013). 특히 양적 연구 동향 분석은 선행 연구들의 경향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임연기 외, 2018). 또한 양적 연구 동향 분석은 고등교육의 양적 연구 접근의 발전과제를 탐색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양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양적 연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양적 연구 발전과제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과거에는 한국고등교육학회(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가 설립되어 '고등교육연구' 학술지를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논문을 발간하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고등교육연구'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아니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등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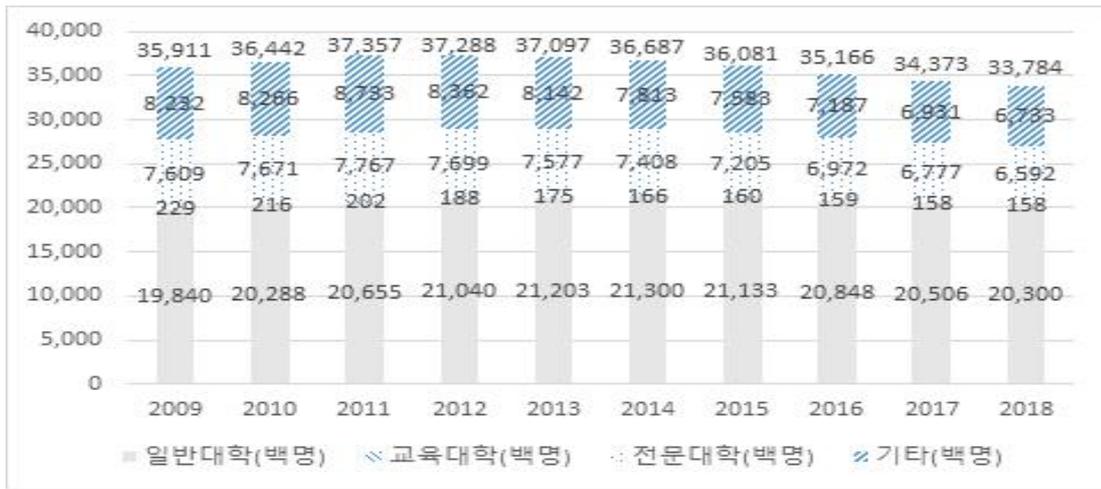
고등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은 2018년 기준 425개교이며, 일반대학교 186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전문대학 137개교, 기타 대학이 92개교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고등교육기관은 429~431개교로 유지되다가 2018년 5개교가 폐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 기타 대학 1개교)되어 425개교가 운영 중이다.



[그림 1] 고등교육기관 현황

주 : 1) 일반대학은 본교 기준
 2) 기타 :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
 3) 특별법 및 교육부 외 타부처 설립에 근거한 대학 현황은 2011년부터 포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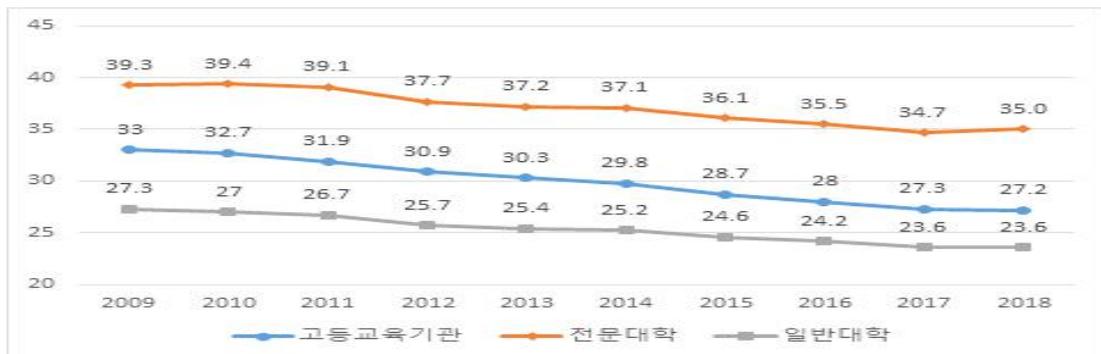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8년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는 총 33,784백명이며, 일반대학교 20,300백명, 교육대학 158백명, 전문대학 6,572백명, 기타 대학이 6,733백명이다. 출산률 저하로 재적학생 수는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현황

주 : 1) 기타 :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
 2) 특별법 및 교육부 외 타부처 설립에 근거한 대학 현황은 2011년부터 포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전체 27.2명, 일반대학교 23.6명, 전문대학 35명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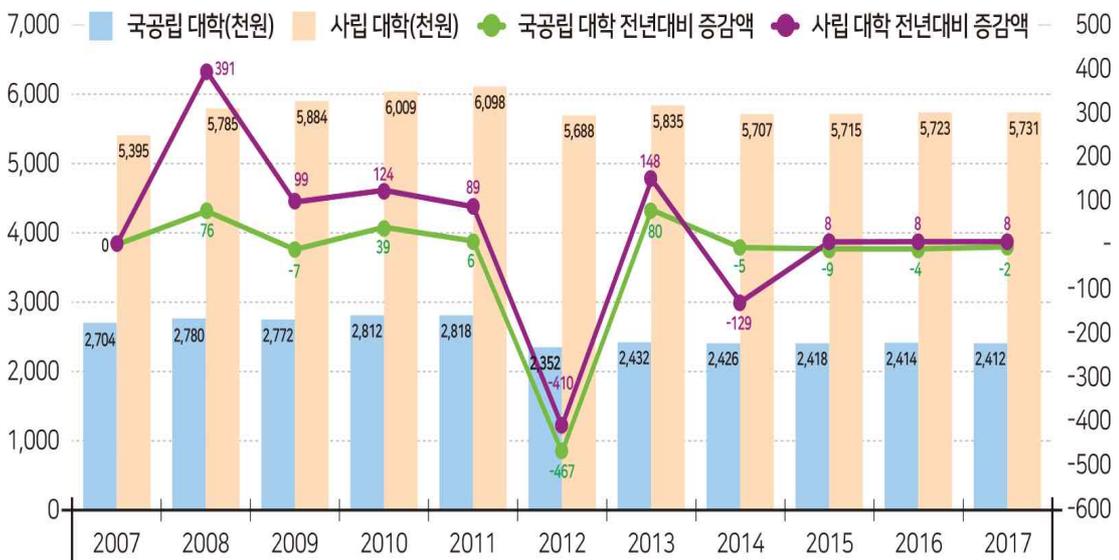


[그림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주 : 1)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재학생 수 / 전임교원 수
 2) 2013년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전임교원 수에는 총(학)장과 전임교원이 포함됨. 단,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금교수가 포함됨
 3)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4) 특별법 및 교육부 외 타부처 설립에 근거한 대학 현황은 2011년부터 포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 고등교육 재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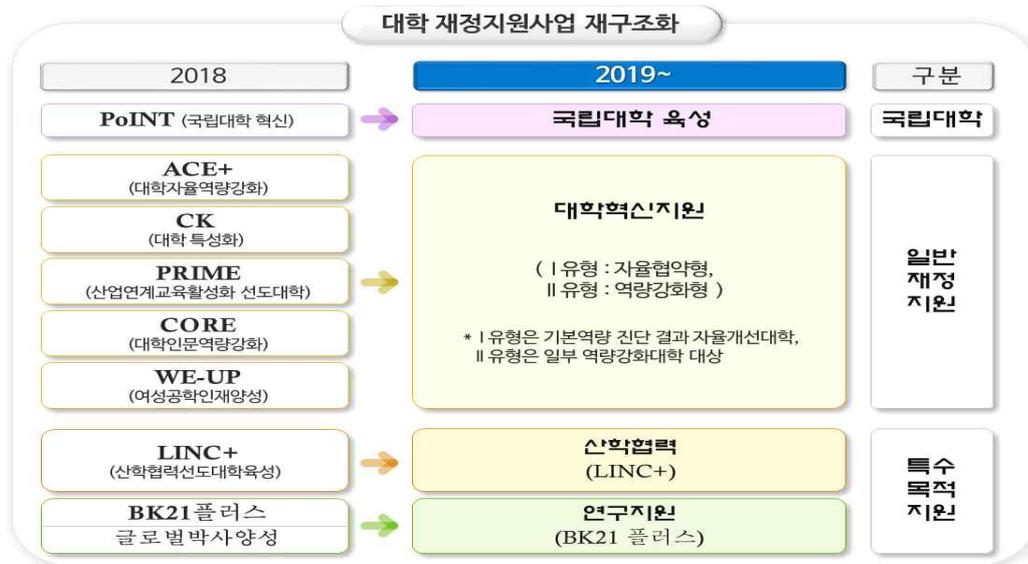
오늘날 고등교육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등록금 동결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2009년부터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면서 고등교육 재정은 악화되었다(송기창, 2019). 특히 사립대학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등록금 감소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김병주, 2019)



[그림 4] 학생 1인당 등록금 추이(단위 : 천원)

자료 : 학교별 회계결산 자료, 사학진흥재단 내부자료.(일반대학교와 전문대학 포함)
출처 : 서재영 외(2019), p.83.

등록금 동결과 더불어 고등교육 재정에 큰 변화를 초래한 정책은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동결되자, 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크게 증가시키고, 2009년에는 기존의 NURI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전문대학특성화 사업 등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흡수, 통합하여 평가에 기반한 포물러 방식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적용하였다.(임후남 외, 2012). 이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대신하여 재정지원의 목적에 따라 ACE, PRIME 사업 등이 생겨났다.



[그림 5]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출처 : 교육부(2019). p2.

2019년부터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 특수목적),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재구조화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포물러 방식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시행한 포물러 방식의 재정지원사업은 명칭 및 세부적인 내용 등은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그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분석기준 선행연구 고찰

분석 기준 선정은 연구 동향 분석에서 필수적이다(김규태 외, 2010). 동향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적절한 분석 기준 선정은 경향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활용한 고등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기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주제는 연구하는 대상의 연구 영역이나 내용과 관련된다(신현석 외, 2014). 고등교육이라는 대상의 영역이나 내용은 연구자마다 분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서도 주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제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정철 외(2008)는 2000~2007년까지 국내·외 고등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8개의 주제를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의 6개,

국의 5개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학술지를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의 고등교육 연구가 보다 실증적·현장중심·학생중심의 연구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김규태 외(2010)는 선행 연구의 분류 기준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20개 주제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행정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995~2009년까지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일반적인 동향 분석 기준(연구주제, 연구방법 등)과 더불어 분석접근(미시/거시), 조직행동(개인/관계/문화/교육/구조) 등을 기준으로 한 연구패턴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 조직 내의 미시적 접근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변기용 외(2012)는 고등교육행정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연구 주제를 다음과 같이 10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39개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2001~2010년까지 KCI등재 학술지를 기준으로 고등교육과 관련되는 31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연구 주제가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론적으로 탐구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임을 밝혔다.

해외 고등교육 주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Volkwein 외(1988)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진 고등교육 연구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고등교육연구 학술지(Research in Higher Education)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 연구협회(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에서 분류한 26개의 주제를 기반으로 추가 및 수정하여 16개의 분류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연구자 및 기관이 다양해졌으며, 고등교육의 주제와 연구 방법 또한 그 범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Tight(2007)는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해외 17개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2000년에 발간한 논문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핵심어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8가지 영역으로 주제를 구분하였다. 이상의 연구 주제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고등교육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주제	신정철 외 (2008)	김규태 외 (2010)	변기용 외 (2012)	Volkwein 외 (1988)	Tight (2007)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선발 및 관리	학생	학생경험
학사	-	학사	학사행정 및 조직	-	학사
교육과정	교육과정/ 수업	-	-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	-	-	-	교수학습
교수	대학교수	-	-	교수	-
연구	-	연구	연구/ 산학연협력	연구	-

연구자 주제	신정철 외 (2008)	김규태 외 (2010)	변기용 외 (2012)	Volkwein 외 (1988)	Tight (2007)
행정 (인사, 조직 등)	행정/ 지배구조	인사	교직원 인사 및 문화	행정 및 거버넌스	기관경영
	-	조직	조직, 행정 및 거버넌스	-	-
	-	거버넌스	-	-	-
재정	재정/경제	재정	재정/경제/시설	재정	-
책무성/질	책무성/ 질 보장	책무성	책무성/ 질보장	-	질
국제화/ 세계화	세계화	국제화	국제화/ 세계화	국제비교	-
	-	비교연구	-	-	-
성과/효과	-	효과성	-	조직 효과	교육성과
환경	-	인적자원	노동시장/자격	인구학적 특성	시스템 정책
	-	-	-	대외관계	-
	-	-	-	성/인증	-
기타	사회학적 이슈	평생교육	고등교육 기초연구	(지역) 전문대학	-
	-	-	-	법/윤리	-
	-	-	-	성인교육	-

다음으로 양적 연구 동향 분석과 관련하여 연구 방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현석 외(2014)는 교육행정학 양적 연구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양적 연구 분석 방법 기준을 7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서만덕 외(2010)는 양적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 기준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2>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분석 기준	신현석 외(2014)	서만덕 외(2010)
표집방법	표집 안함 확률표집/비확률표집	확률표집 비확률표집
자료수집 방법	직접 수집/간접 수집	전화/배포/면접/전자
통계 방법	기술통계/초급통계 중급통계/고급통계	집단비교 관계분석(상관,회귀) 지표개발(요인/신뢰도)
간접 데이터 수집	각종 기관 관리 데이터	-
연구 종류	횡단연구/종단연구	-
타당도	명시하지 않음 안면타당도/ 구인타당도	-
신뢰도	명시하지 않음 cronbach α 사용 유무	-

Ⅲ. 연구방법

1. 분석 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고등교육 양적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과 포물러 방식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을 분석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교육 분야 학술지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서 등재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 분야 학술지 중 전문학술 단체에서만 발간하는 학술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에 포함된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표 3> 고등교육 연구가 게재된 주요 학술지

번호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등재연도	등재후보 선정연도	분석대상 논문	비율
1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2004	2001	46	18.9%
2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2000	64	26.2%
3	교육재정경제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1	1999	88	36.1%
4	교육평가연구	한국교육평가학회	2001	1998	18	7.4%
5	한국교원교육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2005	2002	15	6.1%
6	교육정치학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2008	13	5.3%
합 계					2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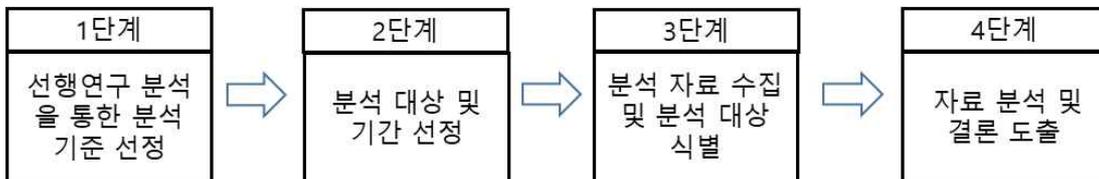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같이 특정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거나(변기용 외, 2012; 신정철 외, 2008), 분석 주제에 따라 관련된 하나의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김규태 외, 2010; 남수경, 2015). 현재 국내에서는 고등교육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등재학술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흩어진 고등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수집하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한국고등교육학회가 설립되어 ‘고등교육연구’ 학술지를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발간하였지만, 현재는 학회가 없는 상태이다. 2018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고등교육연구’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아니다.

지금까지 수행된 고등교육 연구 동향 분석은 학술지를 기준으로 분석할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법 외에 분석할 연구물을 선정하고자 한다면, 논문검색사이트에서 ‘대학’이나 ‘고등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등교육과 관련된 모든 연구들을 검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 분석 대상인 244편의 연구 중 제목에 ‘대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가 244편 중

41편이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교육과 관련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직접 내용을 확인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4단계의 절차에 따라 고등교육 양적 연구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분석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학술지 및 기간을 선정하였다. 다음 3단계에는 선정된 학술지를 검색하여 분석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분석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식별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논문들을 분석 기준에 맞게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 6] 연구 절차

3. 분석 기준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13개의 분류로 주제를 세분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제를 살펴보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제를 분류함에 있어서 ‘대상’과 ‘내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연구 주제 분석 기준을 살펴보면, 학생 혹은 교수라는 연구 대상이 연구 주제로 분류되어 교육과정, 행정, 연구 등의 내용적 요소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주제와 관련된 분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분석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 내용을 기준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크게 교육, 재정, 행정, 책무성, 국제화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은 고등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분석 기준이므로, 연구 대상 또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류는 학생, 교직원, 대학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 동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 자료 수집 방법, 간접 분석 자료 출처, 분석 기간, 그리고 통계 방법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가급적 세분화하였다. 이상의 분석 기준과 하위 범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분석 기준 및 하위 범주

분석 기준	하위범주	
주제	교육	교수법, 대학생활, 심리(만족도 등), 사교육, 진로/취업, 학습, 휴학/중도탈락
	재정	기부금, 등록금, 수익률, 연구비, 입학금, 장학금, 재정배분, 학자금
	행정	리더십, 선발, 입학, 조직, 직무, 효율성
	책무성	교육성과, 대학평가, 사업성과, 연구성과
	국제화	국제화
대상	대학생, 교직원, 대학교	
분석 목적	영향요인, 집단 비교, 집단 구분, 실험연구, 진단도구 개발, 타당도 분석, 효율성 분석, 기타	
분석 방법	자료수집 방법	직접, 간접
	간접 자료 출처	대학알리미(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졸자직업이동조사(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고용패널(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중단조사(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대학재정알리미(구 사립대학 회계정보 시스템,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수학습과정 설문조사(한국교육개발원), 학부 교육 실태조사, 고등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한국장학재단 자료, 기타(재정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중앙일보 대학평가 자료 등)
	분석 기간	횡단연구, 종단연구
	통계 방법	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평균비교(t, F검증 등), 상관관계, 요인분석(탐색적, 확인적), 구조방정식, 교차분석, 위계적 선형모형(HLM), 패널분석, 경향점수매칭, 자료포락분석(DEA), 타당도분석, 수익률 분석, 군집분석, 생존분석, 잠재계층분석, 조절효과분석, 기타

IV. 연구결과

1. 연구 주제별 동향 분석

총 244편의 연구 주제별 동향 분석을 살펴본 결과, 교육분야가 총 133편(5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정 46편(18.9%), 행정 34편(13.9%), 질관리 29편(11.9%), 국제화 2편(0.8%) 순으로 연구 주제가 분석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거의 20편 이상씩 고등교육 양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특히 2014년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분야는 대부분 매년 10편 이상씩 양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6년에는 20편으로 가장 많은 양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재정분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편씩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행정분야는 2010년과 2018년에 6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책무성은 2014년에 8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 5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제화는 2015년에 2편만이 양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 주제별 동향 분석 결과

(단위 : 건, %)

연도 내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
교육	8	11	15	12	12	17	13	20	9	16	133 (54.5)
재정	6	1	5	6	4	8	6	8	1	1	46 (18.9)
행정	3	6	1	5	3	2	4	2	2	6	34 (13.9)
책무성	3	2	1	2	2	8	3	1	2	5	29 (11.9)
국제화	0	0	0	0	0	0	2	0	0	0	2 (0.8)
합계 (%)	20 (8.2)	20 (8.2)	22 (9.0)	25 (10.2)	21 (8.6)	35 (14.3)	28 (11.5)	31 (12.7)	14 (5.7)	28 (11.5)	244 (100)

구체적으로 세부 주제별 동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학습이 52편(21.3%)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다음으로 진로/취업(30편), 심리(20편) 순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재정 분야는 장학금과 학자금이 각각 13편(5.3%)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등록금이 10편(4.1%)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행정 분야에서는 효율성이 11편(4.5%)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다음으로 직무(8편), 입학(6편)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책무성 분야에서는 교육성과가 9편(3.7%)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다음으로 대학평가(8편)와 (재정지원)사업성과(7편)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세부 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에 가장 많은 연구는 행정분야의 효율성 연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교육분야의 학습이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과 2014년은 진로/취업 분야가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 세부 주제별 동향 분석 결과

(단위 : 건, %)

내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교육	교수법	1	0	0	0	0	1	0	0	0	0
	대학생활	1	2	3	1	1	1	2	2	0	1	14(5.7)
	심리	2	2	1	0	1	6	1	2	1	4	20(8.2)
	사교육	0	1	2	3	0	0	0	0	0	0	6(2.5)
	진로/취업	2	3	1	3	5	5	2	2	2	5	30(12.3)
	학습	2	2	6	5	4	4	7	12	4	6	52(21.3)
	휴학/ 중도탈락	0	1	2	0	1	0	1	2	2	0	9(3.7)
재정	기부금	0	0	0	0	0	0	0	1	0	0	1(0.4)
	등록금	1	0	2	1	1	1	1	2	0	1	10(4.1)
	수익률	1	1	0	0	1	1	0	1	0	0	5(2.0)
	연구비	0	0	0	1	0	0	0	0	0	0	1(0.4)
	입학금	0	0	0	0	0	1	0	0	0	0	1(0.4)
	장학금	0	0	0	0	2	5	2	3	1	0	13(5.3)
	재정배분	2	0	0	0	0	0	0	0	0	0	2(0.8)
	학자금	2	0	3	4	0	0	3	1	0	0	13(5.3)
행정	리더십	0	0	0	1	1	0	0	0	0	0	2(0.8)
	선발	1	0	0	0	0	0	1	0	0	2	4(1.6)
	입학	0	1	0	1	0	1	0	0	1	2	6(2.5)
	조직	0	1	0	0	1	0	0	1	0	0	3(1.2)
	직무	0	0	0	1	0	0	3	1	1	2	8(3.3)
	효율성	2	4	1	2	1	1	0	0	0	0	11(4.5)
책무성	교육성과	1	1	0	1	0	2	1	0	1	2	9(3.7)
	대학평가	1	0	0	0	2	2	2	0	1	0	8(3.3)
	사업성과	0	1	0	1	0	2	0	1	0	2	7(2.9)
	연구성과	1	0	1	0	0	2	0	0	0	1	5(2.0)
국제화	0	0	0	0	0	0	2	0	0	0	2(0.8)	
합계	20	20	22	25	21	35	28	31	14	28	244	
(%)	(8.2)	(8.2)	(9.0)	(10.2)	(8.6)	(14.3)	(11.5)	(12.7)	(5.7)	(11.5)	(100)	

2. 연구 대상별 동향 분석

연구 대상별 동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대상 연구는 141편(57.8%)이며, 대학교 대상 연구는 64편(26.2%),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교를 함께 연구한 논문은 15편(6.1%)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편(8.2%),

대학생과 교직원을 함께 연구한 논문은 4편(1.6%)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2014년에는 대학교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17편으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16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 대상별 동향 분석 결과

(단위 : 건, %)

연도 내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
대학생	9	13	17	16	8	16	17	20	8	17	141 (57.8)
교직원	1	1	1	1	4	0	3	3	2	4	20 (8.2)
대학교	7	6	2	7	6	17	5	5	2	7	64 (26.2)
대학생과 교직원	1	0	2	0	0	1	0	0	0	0	4 (1.6)
대학생과 대학교	2	0	0	1	3	1	3	3	2	0	15 (6.1)
합계 (%)	20 (8.2)	20 (8.2)	22 (9.0)	25 (10.2)	21 (8.6)	35 (14.3)	28 (11.5)	31 (12.7)	14 (5.7)	28 (11.5)	244 (100)

3. 분석 목적별 동향 분석

분석 목적별 동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향요인(인과관계)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129편(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단비교 49편(20.1%), 진단도구개발이 22편(9.0%) 순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영향요인 중에서도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단순한 인과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92편(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단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이 18편(7.4%), 매개변인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17편(7.0%), 조절효과 분석이 2편(0.8%) 순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영향요인(인과관계)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많이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단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또한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효율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2014년 이후로는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분석 목적별 동향 분석 결과

(단위 : 건, %)

내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영향요인	단순인과	6	5	12	14	6	10	13	7	7	12
	매개효과	0	3	1	1	3	1	1	6	0	1	17(7.0)
	조절효과	0	0	0	0	0	0	0	0	1	1	2(0.8)
	패널분석	2	0	2	1	0	6	2	1	0	4	18(7.4)
	소계	8	8	15	16	9	17	16	14	8	18	129(52.9)
	집단비교	5	5	4	4	4	9	3	8	3	4	49(20.1)
	집단구분	0	0	0	1	1	1	2	3	0	1	9(3.7)
	실험연구	1	1	0	0	1	1	1	2	0	0	7(2.9)
	진단도구개발	3	0	1	2	3	4	3	3	3	0	22(9.0)
	타당도 분석	0	1	0	0	0	1	0	0	0	0	2(0.8)
	효율성 분석	2	4	1	2	1	1	0	0	0	0	11(4.5)
	기타	1	1	1	0	2	1	3	1	0	5	15(6.1)
	합계 (%)	20 (8.2)	20 (8.2)	22 (9.0)	25 (10.2)	21 (8.6)	35 (14.3)	28 (11.5)	31 (12.7)	14 (5.7)	28 (11.5)	244 (100)

4. 분석 방법별 동향 분석

가. 자료 수집 방법 동향 분석

자료 수집 방법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접 수집은 98편(40.2%)으로 나타났으며, 간접 수집은 146편(59.8%)으로 나타나 고등교육 연구는 직접 수집보다 간접 수집한 자료로 수행한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직접 수집 자료로 수행한 연구는 2015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 수집 자료로 수행한 연구는 2014년에 25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자료 수집 방법 동향 분석 결과

(단위 : 건, %)

내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직접수집	10	9	9	11	8	10	13	11	5	12
	간접수집	10	11	13	14	13	25	15	20	9	16	146(59.8)
	합계 (%)	20 (8.2)	20 (8.2)	22 (9.0)	25 (10.2)	21 (8.6)	35 (14.3)	28 (11.5)	31 (12.7)	14 (5.7)	28 (11.5)	244 (100)

나. 간접 자료 출처 동향 분석

간접으로 수집한 자료 출처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대학알리미 자료로 분석한 연구는 48편(29.4%)으로 가장 많이 연구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대졸자직업이동조사(GOMS) 자료로 분석한 연구가 26편(16.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로 분석한 연구가 17편(10.4%)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관리하는 한국교육종단조사 자료로 분석한 연구가 11편(6.7%), 한국장학재단 자료로 분석한 연구는 10편(6.1%),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관리하는 대학재정알리미 자료로 분석한 연구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한 교수학습과정 설문조사 자료로 분석한 연구는 각각 7편(4.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고등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6편(3.7%)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리하는 학부교육 실태조사 자료는 5편(3.1%),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3편(1.8%)으로 나타났다.

<표 10> 간접 자료 출처 동향 분석 결과

(단위 : 건, %)

내용	연도											합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학알리미	0	4	4	5	6	10	5	4	4	6	48 (29.4)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0	3	2	1	5	2	2	4	3	4	26 (16.0)	
한국교육 고용패널	2	1	4	4	0	3	2	1	0	0	17 (10.4)	
한국교육 종단조사	0	0	0	0	1	2	2	3	1	2	11 (6.7)	
한국장학재단	0	0	1	1	1	2	3	2	0	0	10 (6.1)	
대학재정 알리미	0	1	0	0	0	5	0	1	0	0	7 (4.3)	
교수학습과정 설문조사	0	0	0	0	0	0	0	5	1	1	7 (4.3)	
고등교육통계	1	1	1	0	1	1	0	0	0	1	6 (3.7)	
학부교육 실태조사	0	0	0	0	0	0	2	1	1	1	5 (3.1)	
한국노동 패널조사	1	1	0	1	0	0	0	0	0	0	3 (1.8)	
기 타	6	0	2	2	4	5	0	3	0	1	23 (14.1)	
합 계 (%)	10 (6.1)	11 (6.7)	14 (8.6)	14 (8.6)	18 (11.0)	30 (18.4)	16 (9.8)	24 (14.7)	10 (6.1)	16 (9.8)	163 (100)	

주 : 중복응답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학알리미, 대졸자직업이동조사(GOMS) 자료는 꾸준히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교육종단조사, 교수학습과정 설문조사,

학부교육실태조사 자료의 경우는 특정한 연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경우는 2011년을 제외한 2012년까지 1편씩 연구에 활용되다가 2013년 이후로는 활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 자료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3편 정도 연구에 활용되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재정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나 각종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대학평가 자료 등을 활용한 연구들 또한 분석 기간 내에 23편(14.1%)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분석 기간 동향 분석

분석 기간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횡단 분석은 196편(80.3%)으로 나타났으며, 종단 분석은 48편(19.7%)으로 나타나 종단 분석보다 횡단 분석으로 수행한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횡단분석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단분석 연구는 2014년과 2018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분석 기간 동향 분석 결과

(단위 : 건, %)

내용	연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횡단분석	17	18	18	23	16	25	23	26	12	18	196(80.3)
종단분석	3	2	4	2	5	10	5	5	2	10	48(19.7)
합계 (%)	20 (8.2)	20 (8.2)	22 (9.0)	25 (10.2)	21 (8.6)	35 (14.3)	28 (11.5)	31 (12.7)	14 (5.7)	28 (11.5)	244 (100)

라. 통계 방법 동향 분석

통계 방법 동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110편(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균비교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99편(20.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59편(12.5%), 요인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42편(8.9%), 교차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24편(5.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는 23편(4.9%), 패널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21편(4.4%),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20편(4.2%), 경향점수매칭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16편

(3.4%),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10편(2.1%), 타당도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8편(1.7%), 수익률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5편(1.1%), 군집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4편(0.8%)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회귀분석, 평균비교, 상관관계, 요인분석, 교차분석, 구조방정식과 같은 통계 방법은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분석의 경우도 2017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1편 이상씩은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또한 201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1편 이상씩은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포락분석(DEA) 분석 방법은 2014년 이후로는 고등교육 양적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계층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은 최근에서야 조금씩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통계 방법 동향 분석 결과

(단위 : 건, %)

내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
회귀분석	7	13	13	16	4	13	17	8	5	14	110 (23.3)
평균비교	7	6	5	6	4	14	22	21	3	11	99 (20.9)
상관관계	2	7	3	6	6	6	9	10	4	6	59 (12.5)
요인분석	1	1	4	5	3	8	7	6	5	2	42 (8.9)
교차분석	1	2	2	4	3	4	4	2	1	1	24 (5.1)
구조방정식	1	3	2	4	2	2	2	5	1	1	23 (4.9)
패널분석	2	1	2	1	1	6	2	1	0	5	21 (4.4)
위계적 선형모형	1	0	1	2	4	2	4	2	2	2	20 (4.2)
경향점수매칭	0	1	1	1	0	1	3	3	3	3	16 (3.4)
자료포락분석	2	3	1	2	1	1	0	0	0	0	10 (2.1)
타당도분석	0	0	1	0	1	3	1	2	0	0	8 (1.7)
수익률분석	2	0	0	0	1	1	0	1	0	0	5 (1.1)
군집분석	0	0	0	1	0	1	0	1	0	1	4 (0.8)
생존분석	0	0	0	1	1	0	0	1	1	0	4 (0.8)
잠재계층분석	0	0	0	0	0	0	0	2	0	1	3 (0.6)
조절효과분석	0	0	0	0	0	0	0	0	1	2	3 (0.6)
기타	4	3	1	1	2	0	2	7	1	1	22 (4.7)
합계 (%)	30 (6.3)	40 (8.5)	36 (7.6)	50 (10.6)	33 (7.0)	62 (13.1)	73 (15.4)	72 (15.2)	27 (5.7)	50 (10.6)	473 (100)

주 : 중복응답

5.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가. 연구 주제 동향 분석 결과 요약 및 논의

연구 주제별 동향 분석 결과, 5가지 대주제(교육, 재정, 행정, 책무성, 국제화) 중 교육 분야가 133편(54.5%)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재정분야는 46편(18.9%)으로 교육 분야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세부 주제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분야에서는 학습이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재정분야는 장학금과 학자금, 행정분야는 효율성, 책무성분야는 교육성과가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는 당연히 교육이므로,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기존에 많이 수행되었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과 관련한 연구 주제는 등록금 동결, 2012년에 시행한 국가장학금 정책 등 교육환경 및 정책 변화로 인해 다른 주제보다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제화 분야 양적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제화 관련 양적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문헌 분석이나 질적 연구 방법이 주로 수행되는 분야이므로 양적 연구 분야에 한정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분야에서 대학생의 학습은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과 관련이 깊은 진로/취업 또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고등교육행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변기용 외(2012)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 혹은 진로와 관련된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재정분야는 장학금과 학자금이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 정책이 시행된 후인 2013년부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등록금은 대학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등록금과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무성 분야는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기관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교육분야의 세부 주제에서 거의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고등교육과 관련된 연구 주제의 양적 연구 경향은 '성과'라는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연구의 특성상 구체적인 주제들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연구 대상 동향 분석 결과 요약 및 논의

연구 대상별 동향 분석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전체 연구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정철 외(2008)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가장 많은 연구 대상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인 자료는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는 자료 또한 다수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교직원보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분석 목적 동향 분석 결과 요약 및 논의

분석 목적별 동향 분석 결과, 영향요인(인과관계)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집단비교를 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영향요인을 목적으로 분석한 연구 다음으로 많이 수행되었다. 영향요인 중에서도 단순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살펴봤을 때, 양적 연구에서 가장 큰 분석 목적은 인과관계 파악임을 추측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단순 인과관계 분석부터 최근에는 매개변인을 활용하거나 패널분석을 실시하는 등 복잡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 목적 중에 효율성 분석 연구는 11편(4.5%)이나 수행되었지만, 시기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로는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않았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더불어, 효율성 분석을 위한 자료포락분석(DEA) 연구 방법의 한계로 인해 현재 교육분야에서는 효율성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분석 방법 동향 분석 결과 요약 및 논의

분석 방법 동향 분석 결과, 간접 수집 자료로 수행한 연구가 직접 수집 자료로 수행한 연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단 분석 연구가 종단 분석 연구보다 더 많이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이 활용되는 간접 자료는 대학알리미, 대졸자직업이동조사(GOMS),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계 방법은 회귀분석, 평균비교, 상관관계, 요인분석, 교차분석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분야의 양적 연구는 간접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직접 자료를 활용한 연구보다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더불어 개인이 조사하기 힘든 방대한 표본 집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연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다만, 간접 자료의 경우는 조사된 내용만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분석 기간 동향 분석 결과, 횡단 분석 연구가 종단 분석 연구보다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측정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는 한계가 있고, 종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간접 자료만을 활용해야 된다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횡단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계 방법은 초급 통계부터 고급 통계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통계 방법 또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기존의 통계 방법 또한 개선되고 응용되면서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통계에 대한 지식 또한 고등교육을 연구하는 데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다양한 통계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09~2018년까지 게재된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고등교육과 관련된 양적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의 양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 주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교육과 재정 주제로 수행된 양적 연구는 총 179편으로 분석 대상 논문 중 약 73%를 차지한다. 행정이나 책무성, 그리고 국제화 등 다양한 주제로 양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직접 수집이 어려운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 양적 연구의 대상 또한 다양화가 필요하다. 연구 대상이 지나치게 편중되면 교육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신현석 외, 2014).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학생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총 244편 중 220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등교육기관에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자, 그리고 행정직원 또한 존재하며, 교직원의 연구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면 고등교육의 현상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교직원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수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간접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는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사들을 시행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생 대

상으로 설문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대학기관의 정보들 또한 법에 근거하여 조사 및 공표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정보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주제들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자료들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특정한 한 집단이 자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과 관련한 연구 공동체가 시급히 형성될 필요가 있다. 최근 고등교육과 관련한 전공자가 많이 배출되고, 직·간접적으로 고등교육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교육 전문 학술지(연구재단 등재지 기준)가 발간되지 않아 고등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고등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몇몇 학술지만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선행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변기용 외, 2012). 이러한 점에서 고등교육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회가 활성화되고, 전문 학술지가 발간되는 등 고등교육의 연구 공동체가 시급히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부(2019).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김규태, 손보라, 이석열(2010). 한국 고등교육행정 연구 동향의 성찰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8(3), 181-204.
- 김병주(2010).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이종재 외(2010). 한국교육 60년. 서울: 학지사.
- _____, 유현숙, 백성준, 홍후조, 김정희(2011).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_____(2016). ACE사업 평가의 쟁점과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23(1), 1-30.
- _____(2019).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35-153.
- 남수경(2015). 고등교육재정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4(1), 59-84.
- 박남기, 임수진(2015). 5·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2(4), 1-28.
- 변기용(2009). 고등교육의 학문적 성격과 지식기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문제연구, 33, 147-175.
- 변기용, 가신현(2012). 한국 고등교육행정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0(1), 135-160.
- 서만덕, 남영준(2010). 정보활용능력 분야 학위논문 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 동향과 과제. 정보관리학회지, 27(4), 309-328.
- 서재영, 김은영, 김지하, 우선영, 조옥경, 최정운, 김훈호, 나원희(2019). OECD 고등교육 재정 분석 연구: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송기창(2019).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3-26.
- 신정철, 정지선, 김양선, 박은경(2008). 고등교육의 학문적 연구 동향 분석: 연구구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5(3), 167-193.
- 신현석, 가신현, 이경호, 주영호(2013). 학술지 <한국교육>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1974-2012). 한국교육, 40(4), 207-238.
- 신현석, 박균열, 정주영, 김진미(2014). 한국 교육행정학 분야 양적 연구 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2(4), 109-142.
- 윤정일, 김병주, 김영철, 김운태, 윤종건, 이현청(2003). 교육개혁론.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2015). 교육행정학 원론. 서울 : 학지사.

- 임연기, 김훈호(2018).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동향 및 활용 지식의 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1), 355-382.
- 임후남, 권기석, 엄준용, 이정미(2012).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Tight, M. (2007). Bridging the divide: A comparative analysis of articles in higher education journals published inside and outside North America. *Higher Education*, 53(2), 235-253.
- Volkwein, J. F. & Carbone, D. A. & Volkwein, E. A. (1988).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Fifteen years of scholarship.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8(3), 271-280.

[ABSTRACT]

Analysis of Quantitative Research Trends in Higher Education

Gu, Seongwoo(Yeungnam University)

Kim, Byoungjoo(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of quantit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The study examined 244 quantitative research published in six journals. The journal papers categorized into 4 themes, subject, target population, purpose, and method.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quantitativ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research subjects need to be diversified. Among the papers, research on education and finance were 73%. Second, research targets need to be diversified. The majority of the papers(220 of 244) targeted institutions and students. Third, mostly the panel data collected by government agencies were used. Fourth, a research community for higher education study needs to be established.

Key words : higher education, quantitative research, research trends